

|  |
| --- |
| Truck driver on a construction site employing internal migrant workers from the countryside. Beijing. China. (click to enlarge)Migrant from Tajikistan working for the agricultural enterprise and farm 'sovkhoz Voronovo'. Podolsky district, Moscow region. Photographic mission to Russian Federation, 22-29 September 2006.  (click to enlarge)Rural cooperative (supported by the ILO) gathering women from the district of Lahore. Pakistan (click to enlarge)The fishmarket in Dubai, packed with freshly caught prawns and other shellfish. Cheap immigrant labour is used to prepare the fish bought by restaurants and private individuals. This is hard work especially in summer because of intense heat. (click to enlarge)Women Cooperative (project supported by the ILO): in the quarries of Mtongani (Dar Es Salaam), a mushroom and hen house project directed under cooperative form was proposed as an alternative to the stone breakage that used to be the principal activity of women in the dictrict. The production is then sold in the markets. Picture: sharing recipes among members of the cooperative. (click to enlarge) |

**한국 EPS하에서 이민노동자의향상된 귀환 시재통합을 증진시키기 위한**

**SSE(사회적 연대 경제)의 개발 잠재력 활용 방안**

**제안서**

**제안 사업의 근거와 타당성**

본 제안서는 한국의 민간 기업 및 독립체, 한국, 키르기즈스탄, 베트남 및 몽골의 관련 정부기관, 그리고 국제노동기구의 사회적 파트너들이 한국의 고용허가제도 (EPS) 참여 국가의 경제적 사회적 발전과 한국 거주 이주민 노동자의 인적자원 개발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하는 정부-민간 합작사업을 제시한다. 이 프로젝트는 한국의 노동인구 이동의 효과와 SSE 정책의 효과를 극대화 시킴으로써 EPS참여국가의 경제적, 사회적 발전을 도울 뿐만 아니라, 이민 노동자들의 능력 개발을 돕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 프로젝트는 2011년 11월 29일 부터 12월 1일까지 개최되었던 제 4차 원조효과성을 위한 고위급회담 (부산 세계개발원조총회)의 ‘효과적 개발 협력을 위한 부산 파트너십’, 또는 ‘부산선언’, 의 정신을 이어받고 있다. 이 총회는 “지속가능한 발전 결과”를 성취하기 위한 세계 발전 파트너십을 지원한다.

이 프로젝트는 키르기스 공화국, 베트남과 몽골에 이민 노동자를 위한 일자리 창출과 좋은 일자리(Decent work)를 도모하기 위해 SSE 모델을 광범위하게 도입하고 활용할 것을 제안한다. 이 노트에서 사용되었듯이, SSE에는 협동 조합, 다양한 사회 집단, 협회, 사회 기업 및 재단 뿐만 아니라, 공공소유 이거나 공공으로 조직된, 민주적으로 운영되고 시민의 복지 증진을 최우선으로 하며 이윤을 주주에게 돌려주는 다양한 기업들도 포함된다. 결과적으로, SSE는 여성 및 소외된 약자들의 역량강화를 위해 활동한다. 이 프로젝트는 이미 존재하는 한국의 EPS내의 기관들 및 네트워크를 활용할 것이다. 그럼으로써 이 프로젝트는 SSE 기업의 특징과 실용적인 면과 여러 협조적인 사회 기업들을 통해 이민 노동자의 교육 및 산업 관리 능력을 증진시키는 데 기여할 뿐만 아니라, 그들을 각국의 SSE네트워크에 연결시켜 주고 국제적인 네트워크 구축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다. 이런 과정을 통해, 이 프로젝트는 이민 노동자들과 그들의 모국을 위한 공공 성장 및 지속가능한 발전을 돕는 것에서 더 나아가, 한국의 이민노동정책이 다른 노동/고용관련정책 및 한국의 공적개발원조(ODA) 전략과도 조화롭게 통합될 수 있도록 기여할 수 있다. 이 프로젝트는 키르기스 공화국, 몽골, 베트남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이는 이 국가들이 노동 이민 관련 분야에서 한국과 지속적인 관계를 맺고 있으며, 또한 이 국가들의 노동이민 및 사회경제발전 분야에서 ILO의 활동경험을 반영한 결과이다.

이민자들의 기술 및 노동력, 임금, 인적자원과 사회적자본의 이전, 기업정신 및 혁신을 통하여 그들의 모국과 이민국 양국의 경제 발전에 기여한다는 사회적합의가 이루어 지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유엔총회는 2013년 10월 3,4일에 국제이민과 발전에 관한 High-level Dialogue를 소집하여, 국제이민자들과 그들 나라의 발전을 돕고 이들의 결속 및 협동을 강화시키고, 부정적 결과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기위해 노력할 것이다. 더욱이, 최근 유엔의 Post-2015 발전계획안 작성을 검토할 때, 인구 역동력 분야에서 이민문제도 다루어 졌다. 두가지 절차 모두 단순히 유엔 구성집단 (국가)을 넘어서, 노동자, 노동집단, 시민 단체, 연구 협회 및 여러 민간 단체 파트너들과의 협동과 협의의 중요성을 강조하고있다. 이를 통해 장기간 생존력과 지속적인 조정능력을 강화하며, 문제 전체에 걸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세계 재정난의 영향으로 인해 사회 연대 경제에 대해, 즉, 전통적인 협동조합 부터 새롭게 출현한 “사회적 기업”까지 다양한 측면에 대해 새로운 관심이 생겨났다- 사회적 기업에 관한 이론은, 이민 가족 등과 같은 사회의 소외 계층을 돕는 SSE기업들이, 개인 이윤 추구가 최대 관심사인 전통 기업들과 비교하여, 경제 위기 기간동안 더 나은 실적을 냈다는 연구에 기반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 프로젝트는 이러한 최근 주요 변화들을 구현 하고 있고, 따라서 시기 적절하며, 성공할 가능성이 크다.

**프로젝트 전략 세부 내용**

이 프로젝트의 개시에 있어서, SSE 분야의 특성과 세 시험국의 노동이민과의 관계는 기술 지원 및 교육의 필요성을 평가하기 위해 연구되어 질 것이다. 시장 조사는 고성장 가능성 분야를 식별해 내고, 더 나은 서비스 제공을 위한 지역 공동체의 필요성을 조사하는데 초점을 맞추어 진행될 것이다. 이 조사에 있어서 키르기스 공화국의 Tian Shan 정책센터와 같은 연구협회가 주요 파트너가 될 것이다. 연구결과는 이 프로젝트의 중심이 되는 구체적인 활동내용을 결정하는 중요한 자료가 될 것이다. 노동이민 경향에 대해 협조적인 역할 방안을 모색중인 키르기스 공화국에 대한 평가는 이미 모스크바에 위치한 ILO 지역사무소 의하여 실시 되었다.

프로젝트 개시 결과와 성과, 참여하는 이민노동력의 기술 정도를 감안하여, 이 프로젝트의 다음 국면은 사업 분야, 특히 SSE 기업을 운영하는 사업 분야에 이민노동자 교육 과정 및 내용을 발전시키는데 초점을 맞출 것이다. 교육과정은 EPS 의 행복 귀국 프로그램 (Happy Return Program)을 통하여 실시될 것이다. 온라인 수업 개설 가능성과, 현재 베트남에서 이루어 지듯, 수업의 일부 및 전체가 시범국가에서 실시되는 가능성 여부가 검토되어 질 것이다.

포괄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한 후에, 이민노동자 참여자들은 SSE 기구가 설립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업 계획안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권장되어 진다. 또한 그들은 현존하는 협동조합, 혹은 사회적 기업에 취직을 고려해 볼 수도 있다. 계획안은 채택위원회 (Selection committee)로 제출되어질 것이며, 그들은 새로운 고용 기회창출 제시하거나, 여성, 노약자, 또는 장애인을 직접적으로 도울 수 있는 가장 적합한 사업 계획안을 체택할 것이다. 씨앗 자본 기금(A Seed Capital Fund)은 선택된 기업들이 새로운 자금 창출을 위해 필요한 기초자금을 지원할 것이다. 이 프로젝트에 관여된 다양한 파트너들- 지역 노동조합, 고용자단체, 시범 국가의 지방 자치단체 및 정부, 개인 분야 파트너, SSE 협회, 교육 협회 등이 포함됨- 또한 이 단계에 이민자들의 기업을 위해 능력개발을 지원할 것이다.

주 파트너:

민간부문, 지방 및 중앙정부, 노동조합, 고용자단체, 협동조합 및 사회적기업연맹

주 파트너:

민간부문, 한국산업인력공단/고용노동부, 노동조합, 고용자단체, 협동조합 및 사회적기업연맹

주 파트너:

연구기관, 협동조합 및 사회적기업연맹

**비교 우위 및 파트너십**

ILO는국제 연합 기관 중 헌법에 의해 의무적으로 이주 노동자들을 보호해야 하는 유일 한 기관이다. 1919년 개시된 후, 이민 노동자 문제를 다루어 왔으며, 올바른 이민정책 설립 및 이민노동자를 보호, 사회안전보장에 앞장 서 왔다. ILO는 고용, 노동이민, 사회안전에 관련된 전문 인력을 보유하고 있다. ILO는 이민노동 문제에 권리에 기반한 접근법을 채택하고 있으며, 이민 정책에 있어 3자 참석을 장려한다.

뛰어난 전문지식 및 권리에 기반한 접근법에 추가하여, ILO는 정부기관과 고용자, 노동자 조합이 참여한 삼자대화를 추구하는 유일한 유엔 기구이다. 결과적으로, ILO는 프로젝트 실행에 관여하는 많은 파트너들 및 전 세계적으로 증가 중인 사회적책임을 분담하는 다국적 기업들과 신뢰관계를 구축하고 있다. ILO는 노동 이민 개발 프로그램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위해 노동자들과 공공분야, 민간분야, 시민단체, 및 이민자 본인들을 연결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 프로젝트 제안서는 개발도상국의 개발 및 사회연대경제 발전 증진과 관련해 과거 실시되었던 COOPAFRICA (아프리카에 위치한 12개의 협동기업의 발전을위해, 교육, 기술지원, 재정지원, 기구지원, 조언서비스를 실시한 프로젝트)와 같은 지난 ILO 프로젝트 실시경험을 융통성있게 통합적으로 참고하고있다. COOPAFRICA와 같은 프로그램을 통해 ILO는 사회연대경제 설립을 위해 필요한 훈련 시스템 및 교육 자료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얻을 수 있었다.

ILO는 또한, 사회재정프로그램 (Social Finance Programme) 및 각종 지역활동들을 통해 이민 노동자와 그 가족을 위해 금융교육 시스템을 발전시켰다. 많은 교육메뉴얼들이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 등 다양한 곳에 도입되어 졌으며, 공공기구, 이주연맹, 재정기구 등 다양한 파트너들의 도움으로 교육이 실시되고있다.

**프로젝트 기간**

3년, 연장될 가능성 있음

**예산**

2,500,000 미 달러